

국내 자동차 산업 기술의 현황과 전망
(The Present Status and Prospect of Technology
in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삼성자동차 김 홍 권

자동차업은 기술 집약 산업으로서 소재 관련 분야를 위시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므로, 자동차 사업의 성공은 관련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기술력의 증강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된다.

1970년 인구 500명당 1대꼴이었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995년 현재 8.3명당 1대로 급증하였으며, 자동차 생산 대수 면에서도 1990년 이래 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현재 연 250만대의 생산능력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약 5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230만대 규모로 200만대 이상을 수출해야만 경상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연평균 13~16%의 지속적인 수출 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국내 기술은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품질향상 의식의 제고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다각적 혹은 다국적 협력관계의 구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평균 R&D 규모는 미국 빅3 평균의 5.6%, 일본의 9%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선진 자동차 업계와의 기술 경쟁력 격차를 신속히 극복하고, 기술의존을 탈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 증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질실히 요구된다.